

보도자료

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7. 22.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영종청라기반과
담당	과장 천준홍, 기반시설팀장 이상신, 담당 김명호(032-453-7604)

“무의도 내 도로 여건 크게 개선된다”

큰무리마을~하나개입구 도로 완공돼 23일 개통

무의도내 나머지 3개 도로도 2023년 말 완공 예정

무의도 내 도로 여건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 등 관광 활성화 기대

-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영종국제도시 무의도의 도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의도 내 큰무리 마을에서 하나개 입구를 잇는 도로가 지난 2018년 7월 착공한 지 만 3년만인 최근 완공돼 오는 23일 개통된다고 22일 밝혔다.
- 총 사업비 343억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폭 10m, 총 연장 2.74km의 2차선 도로로 무의도 내에 계획 중인 4개 노선 중 가장 먼저 완료된 구간이다.
- 나머지 3개 도로인 △하나개입구~하나개해수욕장(1.01km), △하나개입구~광명항(1.48km) 구간은 오는 11월, △큰무리선착장~큰무리마을(0.67km) 구간은 내년 착공될 예정이며 오는 2023년 12월 전 구간 개통이 목표다.
- 인천경제청은 큰무리 마을~하나개 입구 도로 개통으로 무의도 교통여건이

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또 이에 따른 하나개해수욕장, 소무의도 이용 관광객 유입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천준홍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장은 “무의대교 개통 후 지속적인 입도차량 증가와 공사 중 좁은 도로에서의 우회로 확보 불가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됐지만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철저한 공정 관리로 공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”며 “앞으로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한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”고 밝혔다.